

이산가족의 정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양 성 은(인하대 부교수)

본 연구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정치적 맥락,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적 맥락, 법률적 가족법주로서 이산가족을 구분하는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면서, 질적연구법을 통해 이산가족의 정체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통일부훈령 제334호 2조, 2003)”를 말한다. 특히 이산1세대는 분단이라는 거시체계적 사건에 의해 가족이라는 미시적 관계의 단절을 체험한 당사자들이다. 분단 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됨에 따라 이산1세대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당위성을 지니며, 또한 실용적 측면에서도 이들이 통일에 기여하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산1세대를 대상으로 탐색적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이산경험과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산1세대는 “1953.7.27(휴전) 이전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지역에서 납북(월북)된 자의 당시 가족(통일부훈령 제334호 2조, 2003)”으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는 이산1세대 14명(남 9명, 여 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범위는 71세-88세였으며, 월남은 1947년-1951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개별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면접의 내용은 이산가족이 된 과정, 남한에 정착한 경험, 다른 이산가족과의 사회적 교류, 북한의 가족에 대한 태도 및 재상봉에 대한 기대, 자녀세대에 대한 관점, 가족에 대한 주관적 정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중심주제분석법(theme analysis)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산1세대의 경험은 전쟁의 혼란, 남한으로 내려와 정착하는 과정의 어려움, 이산가족 공동체의 유대감, 이산2세대에 대한 체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실망, 그리고 통일에 대한 좌절 등이 중심주제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스스로를 “실향민”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현재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이상의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실향이란 가족원과의 이별, 유년기의 상실, 사회경제적 지위의 몰락, 심리적 지지체계의 붕괴 등 다양한 상실을 의미하였다. 이산1세대의 통일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상실한 것들을 되찾으면서 거시체계의 사건으로 불가피하게 왜곡된 개인사료의 복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은 남북의 이념 차이를 절감하기 때문에 감상적인 기대가 아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통일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산가족 공동체 내부의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면서 “고향의식 또는 뿌리의식”이 희석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이산가족, 남북관계, 통일 관련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실용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된 이산1세대를 위한 인도주의적 접근, 이산가족의 실향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고취, 이산가족 공동체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